



조간 제7971호 대표전화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음력 10월 6일)

‘에너지 수도’ 나주, 1조2000억 인공태양 품었다

왕국 ‘에너지 국가산단’
정부 공모 평가서 1순위
지질·부지·인프라 충족

2050년까지 200개 기업
1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내달 3일 최종 입지 확정

대한민국 차세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인 1조2000억원 규모 인공태양 연구시설 후보지 평가에서 전남 나주가 최우선 입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내달 3일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결정 시 전남은 AI·에너지 대전환의 국가 전략축으로 재편되는 분수령을 맞게 된다.

핵융합 상용화 기술 확보와 함께 2050년까지 200개 기업 유치, 1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예상돼 지역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초대형 경제 효과가 전망된다.

▶관련기사 19면

24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나주·전북 군산·경북 경주 등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나주를 1순위로 통보했다.

이번 평가는 기본요건(40점), 입지 조건(50점), 정책 부합성(10점) 등을 중심으로 지난 14~21일 현장조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나주시가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구축 후보지 평가에서 1순위로 선정됐다. 사진은 나주 왕국 에너지 국가산단에 조성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부지 전경.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프레젠테이션(PT)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

나주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핵심 요인은 ‘지질 안정성·대규모 확장 부지·에너지 인프라·주민 수용성’이 모두 충족됐다는 점이다.

후보지로 제시된 왕국면 에너지국가산단 일원은 전체 면적이 100만㎡가 넘는 평탄지로, 공모 기준(50만㎡)의 두 배 규모를 확보했다.

지반은 견고한 화강암 기반으로 최근 50년간 지진·침수 같은 자연재해 기록이 거의 없으며, 장기간 가동되는 핵융합 장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힌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산업·연구 생태계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전력 본사와 한전KPS·한전KDN·전력거래소 등 전력 공기업, 600~670여개 전력 기자재 기업이 모여 있고,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가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핵융합 장치의 ‘8대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를 담당하는 국가 전략 기반으로 평가된다.

전력·교통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는 평가다. 후보지 인근에는 변전소 3곳이 위치해 대용량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KTX 호남선과 국도 3축이 교차하는 교통 요충

지라는 점도 시설 건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주민 수용성 또한 나주의 강점으로 꼽힌다. 나주시는 2021년부터 19개 읍·면·동에서 주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지지 서명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동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착공과 운영에 있어 주민 신뢰는 필수 요소로, 과거 평가 항목에서도 비중이 높게 책정돼 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2027년 착공해 2036~203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서광주역에 ‘코스트코’ 입점하나

한국철도공사, 서광주역세권 철도부지 개발 본격화

내년 3분기 ‘창고형 판매시설 or 테마관광시설’ 공모

서광주역세권 철도부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신사업 계획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서광주역세권 철도 부지(서구 매월동 173-9 일원·2만9289㎡)에 대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 중이다. 해당 부지는 4개 필지로 구성돼 현재 버스·화물차 회차지 및 사무실 임대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건축물이 없어, 계약 종료 시점인 2027년 12월 이후 즉시 개발 전환이 가능한 상태다.

코레일은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개발 방향을 ‘창고형 판매시설’ 또는 ‘철도역 연계 테마관광시설’로 설정하고, 민간 개발사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창고형 판매시설의 경우,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해 소비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2순환도로와 광주~강진고속도로 개통(2026년 말), 광주~나주 광역철도 개설(2029년 착공 목표)이 예정돼 있어 접근성 면에서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면 ‘코스트코’의 최적 후보지로서 손색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스트코는 보통 영업면적 1~2만평 규모의 부지, 대형 주차장 확보, 물류 접근성, 고속도로 연계성을 핵심 요건으로 삼고 있어서다.

광주시민은 그동안 대전 코스트코까지 왕복 4시간 원정 쇼핑을 다녀올 만큼 수요가 높았지만, 부지 확보 난항과 시민단체·소상공인 반발로 광주 유치는 매년 무산돼 왔다. 반면 전북 익산과 전남 순천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서광주역 현황

치로 이미 착공이 임박한 상황이다.

코레일이 검토 중인 또 다른 시나리오는 철도 역사의 특성을 활용한 테마관광시설 조성이다. 시민 설문에서 ‘광주는 놀거리·즐길거리가 부족한 도시’라는 지적이 반복된 만큼, 북구 중심의 기존 관광벨트를 서구권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용역 결과 확정 후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지자체와 부지 용도 변경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 민간 개발사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공모는 내년 3분기에 시작되며, 개발 사업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레일은 사전 검토 내용을 민간과 적극 공유해 개발 제안의 접근성을 높여줄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사전 용역 결과를 공개해 민간업체가 보다 쉽게 개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모 절차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반발 등이 가장 큰 변수다. 여기에 어등산 스타필드, 신세계 확장, 더현대 광주 등 굵직한 복합쇼핑몰 개발 계획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지역 상권과의 상생 모델 마련도 남아야 할 산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국립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해야”

서삼석 의원 “교육부 ‘유연한 통합’ 특례적용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삼석 의원은 (영남·무안·신안·사천)은 24일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남은 노인 26.1%, 장애인 7.52%, 치

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1.86명)은 물론 서울(3.02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 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19.9%)의 두 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만 내 접근율도 53.8%로 전국 평



서 의원은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여 년 동안 이어진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본권 요구”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 통합국립의대는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의 통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유사 규모 글로벌 대학

간 통합의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7년 개교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 교육부의 ‘유연한 통합’ 특례 적용, 정원 배정 및 예비평가 인증 등 필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두 캠퍼스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율려 “전남의 의료 현실은 절박하다.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의료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 회원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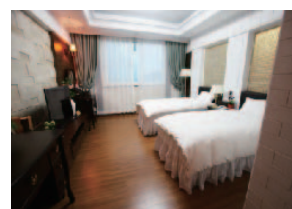
(단위:백만원)

구분	분양금액	구좌	회원특전
VVIP (A형)	700	3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료회차 25회(비회원, 지정회원 위일시 70%할인) - 무기영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멸형 / 1월 1회)
VVIP (B형)	700		- 회원업을, 무기영 1매, 골프텔 할인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 (1회 4인, 1월 기준 / 월 6회 소멸형 / 1월 1회)
VIP 정회원	500	1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료회차 20회 - 무기영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멸형 / 1월 1회)
하트 정회원	320	10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영카드 1매 / 년 72회 (월 6회 소멸형 / 1월 1회)
해피 정회원	180	4좌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영카드 1매 / 년 36회 (월 3회 소멸형 / 1월 1회)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 2026년 연단체모집

- 신청조건** 1부 2팀, 2부 3팀 이상 · 레스토랑 중 · 석식 이용시 우선 배정
- 모집코스** 격월(회, 대) 또는 대중제 선택
- 접수기간** 2025.10.14.(화) ~ 모집 종료시 까지
- 할인혜택** 월별 그린피 추가 할인 혜택
총무, 회장 2인 고정 할인 그린피 제공(3팀 이상 진행시)
레이디, 시니어 추가 할인
7.8월 연단체 진행시 특별 할인 혜택
연말 우수 연단체 선별하여 멤버 전원 혜택 제공
- 접수방법** 연부킹 신청서 작성
(신청서 : 해피니스CC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이메일 접수 : happinesscc@hanmail.net

· 골프호텔 객실



- 2인실 -



- VIP 4인실 -



- 별채 -



- 별채 -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대표전화 061) 330-5000 | 예약전화 061) 330-5001~4